

맞춤 장학금으로 남원 인재 키운다

성적·재능·진로 등 특성 반영
다양한 유형 학생에 학비 지원
지난해까지 2617명에 37억 지급

남원시가 맞춤형 장학사업으로 남원의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남원 춘향장학재단은 지역 내 학령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정수 여건 개선의 일환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장학금 분야 지원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단은 성적, 재능, 진로 성과 등 인재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장학사업을 운영하며, '춘향인재장학금', '남원의 별 특별 장학금', '으뜸인재 특별 장학금' 등 3대 장학사업을 통해 지역 인재 육성에 힘쓰고 있다.

춘향인재장학금은 학업 성취도, 특기·재능, 생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발하는 춘향장학재단의 대표적인 기본 장학사업으로, '우수', '보람', '희망' 세 개 부문으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다.

춘향인재장학생 선발은 1995년 춘향장학재단 설립 이후 현재까지 매년 시행되고 있으며, 2025년까지 총 2617명의 장학생에게 36억55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남원의 별 특별 장학금은 기부자들의 소중한 기탁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바탕으로 전국 및 국제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둬 남원의 위상을 높인 예체능 분야 특기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이다. 개인의 성취를 넘어 남원의 명예를 높인 인재에게 지



남원시가 맞춤형 장학사업으로 남원의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에 나선다. 춘향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 모습. <남원시 제공>

역사회가 보내는 격려와 응원의 의미를 담고 있다. 2023년부터 시행되어 2025년까지 총 37명의 장학생에게 1억 73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재단은 2026년부터 대회 인정 기준과 경기 유형 구분 기준 등 운영 체계 전반을 개선해 장학금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남원의 별'이라는 장학금의 취지에 부합하는 대회 기준을 재정립하고, 학제별 성장 단계를 고려한 전국대회 장학금 지급 횟수 확대와 개인·단체 경기 종목에 대한 지급 기준 등을 명확히 했다.

으뜸인재 특별 장학금은 남원시가 추진 중인 '으뜸인재 육성사업'에 참여한 학생 가운데, 고등학교 졸업 후 국내 최상위권 대학에 진학한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이다. 남원시 인재 육성 정책과 춘향장학재단 장학사업을 연계한 대표적인 정책 연동형 장학금이다.

이 장학금은 중·장기적인 교육 지원을 통해 성장한 학생이 실제 진로 성과로 이어졌을 때 그 결실을 함께 축하하고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인재 육성 정책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으뜸인재 프로그램에 참여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중 1학기 이상 수료하고 출석률 50% 이상을 충족한 자로, 당해 연도 국내 최상위권 대학에 진학한 경우에 한한다.

지급 대상 대학은 우수성에 따라 단계별로 구분된다. 1순위는 종합대학·이공계열·의약계열 중 국내 최상위 대학이며, 2순위는 종합대학의 경우 국내 종합대학 평가 5위 이내 대학, 이공계열은 국내 이공계열 대학 평가 2위 대학, 의약계열은 치과대학·한의과대학·약학대학·수의과대학이다.

/남원=백성 기자 bs8787@kwangju.co.kr

핫한 디저트 ‘두쫘쿠’ 만들러오세요

정읍시, 시민 체험객 모집...전문 강사 초빙 14·21일 진행

“두쫘쿠 만들러오세요.” 정읍시가 최근 ‘가장 핫한 디저트’으로 통하는 ‘두바이 쫘죽 쿠키(두쫘쿠·사진)’ 만들기 프로그램을 마련, 시민을 대상으로 체험객을 모집한다. 이번 체험프로그램에서는 전문 강사가 초빙돼 바삭한 식감이 특징인 ‘카다이프’와 고소한 피스타치오를 활용, 고급스러운 풍미의 두쫘쿠를 직접 만들고 즐길 수 있다. 예정된 체험일은 14일 ‘발렌타인데이’와 21일이며 각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된다. 연인이나 친구, 가족과 함께 특별한 수제 선물을 준비하려는 시민들의 관심이 기대된다. 예약은 9일부터 카카오톡 채널 ‘임산물체험단지’를 통해 할 수 있고 체험비는 아동·청소년 2만 5000원, 성인은 2만 6000원이다.



한편 차향문화관은 그동안 지역 임산물을 활용한 버섯 피자, 호두 초코쿠키 등 요리 체험과 전사 컵 드로잉, 슈링클스 키링 만들기 등 다양한 비요리 체험을 운영하며 정읍의 대표적 체험형 관광거점으로 자리매김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도심 텃밭서 농작물 키우며 공동체 활동

정읍시, 8㎡ 면적 73개소 분양...20일까지 참여자 모집

정읍시가 시민들이 직접 농작물을 재배하며 공동체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왕술밭 공동체 정원’ 텃밭 참여자를 모집한다. 왕술밭 공동체 정원은 도심 시민들이 친환경 농업을 체험하고 건강한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조성된 도심 속 텃밭이다. 개소당 면적은 8㎡, 참여자들은 이곳에서 자율적으로 퇴비를 주고 원하는 모종을 가져며 수확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 분양 규모는 총 73개소로 일반시민 대상 61개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배려 텃밭’ 12개소다. 정읍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가 세대당 1개소만 신청할 수 있다. 희망자는 기간 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20일까지



정읍시의 ‘왕술밭 공동체 정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산 추첨을 통해 선정되는 분양자는 오는 25일 정읍시청 홈페이지 공고와 개별 통보를 통해 알 수 있다. 분양자는 연간 2만원의 사용료를 납부하면 3월3일부터 12월11일까지 텃밭을 이용할 수 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남원시정 홍보, 영상 콘텐츠 제작 확대

남원시가 2026년을 맞아 시민과 함께 만들고 함께 공감하는 홍보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 지자체의 ‘셀프 홍보’에서 벗어나 시민이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생활 중심의 홍보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내용이다. 특히 각종 정책, 제도, 사업 등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이 아닌 시민의 일상 속 변화와 경험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내 시민 모두가 자긍심을 갖고 함께 만드는 홍보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시는 공식 유튜브 채널 ‘남원시 TV’를 시민 소

통 대표 플랫폼으로 삼아 1분 내외의 영상(숏츠)을 중심으로 짧고 명확한 영상 콘텐츠 제작을 확대한다. 정책 설명형 콘텐츠와 시민 체험형 콘텐츠를 병행함으로써 정보 전달력과 공감도를 동시에 높일 방침이다. 시는 이와 함께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등 생활 밀착형 정책의 시기, 방법, 지원내용 등을 영상으로 수어 영상까지 함께 제작·송출해 시민들의 정보접근을 더욱 쉽게 할 예정이다. /남원=백성 기자 bs8787@kwangju.co.kr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실적 3년 새 23% ↑

고창군 가입 면적 1만4601ha...군비 지원 강화로 농가 경영 안정

고창군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실적이 최근 3년 사이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며 농가 경영안정을 뒷받침하고 있다.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기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는 9992호다. 가입 면적은 1만 4601ha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8134호, 1만 2615ha 대비 가입 농가 수는 23%, 가입 면적은 16% 늘었다.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 위험이 커지며 농가의 경영 부담이 높아진 상황에서 고창군의 단계적인 군비 지원 확대 정책이 맞물리며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군은 농작물재해보험 군비 지원 비율을 2022년 15%에서 2023년 20%로 확대하고 2024년에는 25%까지 상향했다. 이에 따라 농가 자부담 비율은 20%에서 10%로

낮아져 농업인들의 체감 부담이 크게 줄었다. 올해 농작물재해보험은 50개 품목을 대상으로 2월부터 가입이 진행됐으며 품목에 따라 가입 기간이 다르게 운영된다. 특히 가을배추도 8월부터 가입이 가능해져 해당 작목 재배 농가의 재해 대응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인근 단위농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자연재해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농가 경영안정을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재해보험과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해 농가가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위기 아동 돕는 ‘드림스타트’ 4억원 투입

고창군, 복지 사각 아동 선제 발굴·가정 양육 환경 개선 등

고창군이 관내 취약계층 아동 지원에 나선다. ‘드림스타트’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양육 환경이 취약할 수 있는 12세 이하 아동과 그 가족,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건강·영양·문화·교육·복지 분야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 복지 사업이다.

군에 따르면 최근 열린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들은 올해 비전을 ‘하늘 아래 모든 아이가 행복한 고창, 꿈을 현실로 만드는 드림스타트’로 정하고 총 4억 2000만원 규모의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중점 과제는 ▲복지 사각지대 위기 아동 선제 발굴 및 조기 개입 강화 ▲아동 발달 단계별 맞춤형 통합서비스 고도화 ▲가정 내 양육 환경 개선을 통한 가족 기능 강화 등이다. 군은 현장 수요를 반영해 신규 프로그램과 아동·가족 통합 지원도 지속해 추진할 계획이다. 김미란 고창군 인재양성과장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로 드림스타트 사업 취지에 맞게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unesco
World Heritage site
Getbol, Korean
Tidal Flats

한국의 갯벌

Getbol, Korean Tidal Flats



한국의 갯벌
유네스코 세계유산

www.getbolworldheritage.org

'한국의 갯벌'은 세계자연유산

- 유 산 명 : 「한국의 갯벌」 (Getbol, Korean Tidal Flats)
- 등재기준 : (x) 생물다양성 및 멸종위기종의 서식지
- 등재년도 : 2021년
- 유산면적

명칭	한계 (km)	유산지역 (km)	원종구역 (km)
총면적(km)	2,030.03	1,284.11	745.92
서천 갯벌	104.66	68.09	36.57
고창 갯벌	74.11	55.31	18.80
신안 갯벌	1,773.40	1,100.86	672.54
보성·순천 갯벌	77.86	59.85	18.01

※ 유산지역 면적은 서울시(605.24km)의 약 2배, 전체 연안습지보호지역 (1,497.24km)의 약86%, 국가연안습지(2,482.00km)의 약52%를 차지

탁월한 보편적 가치 (OUV)

지구 생물 다양성의 보존을 위해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의미있는 서식지 중의 하나이며, 특히 멸종위기 철새의 기착지로써 가치가 크므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로부터 인정

한국의 갯벌 VR프로그램

한국 갯벌의 생태를 VR로 만나보세요! 철새이동, 먹이활동, 서식굴, 쾨름을 싸움, 염낭개, 염생식물, 오염된 갯벌 구출까지 7가지 콘텐츠로 갯벌의 생명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철새이동



철새의 먹이활동



서식굴



오염된 갯벌에서 갯벌생물을 구하자



쾨름어 영역싸움



갯벌의 청소부 염낭개



염생식물의 역할

"생생한 현장, 함께한 순간들"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이는 생태 탐험 수업 현장!



VR로 떠나는 생생한 갯벌 탐험



직접 만지고 만드는 생태 교육 체험



내 손으로 만드는 미니 갯벌 생태계



